

‘민중’을 향한, 전도적 상상력과 전복(顛覆)의 서사

—신채호 문학(론)에 대한 고찰

조 영 란*

요약

문학(사)의 구성을 논하는 데 있어 단재 신채호(申采浩, 호는 丹齋, 1880~1936)가 지닌 문학론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의 문학에 대한 서술이 지닌 다양한 층위 때문일 것이다. ‘전통’과 ‘근대’를 넘나들면서 조선의 ‘민족’을 호명하는 동시에 그 주체성을 자각케 하려는 신채호의 사상의 층위는 폭넓은 저작물들에 녹아져 있다. 역사서를 비롯하여, 논설, 소설, 전기, 시 등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그의 사유의 변곡은 실로 방대하기까지 하다. 이 글은, ‘신채호의 서사물들을 관통하는 사유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신채호가 지닌 사상의 거점은 ‘본질주의적인 것’에 놓여 있었다. 이는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도(道)와 상통한다. 또한 형식이 아닌 근본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가 생존이 위협받았던 1900년대, 신채호는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의 창조와 형성을 꿈꾼다. 이를 위해 ‘아(我)’의 개념을 강조하며, ‘아’를 바탕으로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몰두한다. 민족으로 규정되는 ‘아’는 독립적 존재이자 힘의 정치적 논리를 수용하는 한편, 이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여야 했다. 더불어 ‘민족’에게 자국의 문명과 깨우침을 주는 작업에 대해 구상하는데, 그 ‘학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언어 중심의 ‘학(學)’이며, 다른 하나는 ‘학’의 외연을 지지해 줄 ‘상무(尙武)’의 논리였다. 그는 자국 생성의 기반이 되는 ‘국문학’과 소설론을 주창했으며 혁명을 위한 무기로서 문학을 선택했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박사 수료

다. 특히 그는 문학 작품 중에서도 민중적 서사를 지향했는데, 그 까닭은 민중으로부터 비롯된 '앞'의 문학을 구축함을 통해 새로운 '국가' 형성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열망 때문이었다.

주제어: 신채호 문학론, '아(我)'의 의미, 민족 공동체, 국문학과 소설, 민중 서사, 허구성, '앞'의 문학, 주제성 확립

목차

1. 전통과 근대를 관통하는 '문학', 그 '본질(本質)'에 대한 탐색
2. '아(我)'를 넘어선 '민족'으로의 사유의 확장
3. 민족 통합의 기반 : 국문학과 소설
4. 주류적 서사에서 비껴선 민중적 서사의 지향
5. 결론 : 아래로부터의 '앞'과 신채호의 문학론

1. 전통과 근대를 관통하는 '문학', 그 '본질(本質)'에 대한 탐색

문학(사)의 구성을 논하는 데 있어 단재 신채호(申采浩, 호는 丹齋, 1880~1936)가 지닌 문학론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의 문학에 대한 서술이 지닌 다양한 층위 때문일 것이다. 즉, 그의 인식은 조선 후기로부터 이어져 오던 문학적 전통을 일면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비판하는 근대적 사유의 혼종된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전통'과 '근대'를 넘나들면서 조선의 '민족'을 호명하는 동시에 그 주제성을 자각케 하려는 신채호의 사상의 층위는 폭넓은 저작물들에 녹아져 있다. 역사서를 비롯하여, 논설, 소설, 전기, 시 등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그의 사유의 변곡은 실로 방대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이 글은 '그의 서사물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라는 확장된 질문으로 보다는 역으로 '그의 서사물들을 관통하는 사유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로 소급되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한다. 이는 곧 신채

호가 지녔던 다양한 서사물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이였을까,로도 바꾸어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신채호가 ‘유교’와 ‘유학자’들을 비판했던 논설문 한 편에 주목하게 되었다.

嗚呼라, 韓國은 儒敎國이라, 今日 韓國의 衰弱이 此에 至함은 其 惟儒敎를 信仰한 所以가 아닌가, 曰 否라. 奚其然이며 奚其然이리오, 儒敎를 信仰하므로 衰弱함이 아니요 儒敎의 信仰이 其道의 不得한 故로 衰弱이 至하니라.¹⁾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유학’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유교계나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비행동성과 현실을 읽지 못하고 존화주의적 태도에서 말미암는, 즉 명분 중시에 따른 일련의 모습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다.²⁾ 그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곧 유교의 폐단은 그 도(道)를 잃었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유학(儒學)’을 비판할 때, 그가 진정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유학’ 그 자체가 아니었다. ‘본질’(혹은 근원)을 이탈하여 그 정체성을 탈각해버린 것에 대한 질타였다. 비단 이 논설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서술했던 대부분의 글들은 ‘중심’을 벗어난, 그 본질을 잃었을 때 파생되는 상황에 대한 비난과 다시금 그 ‘중심’을 찾기를 종용하는 질타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신채호가 지닌 사상의 거점은 곧 ‘본질주의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도(道)와 상통한다. 또한 형식이 아닌 근본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신채호가 추구하는 것이 유학적 ‘도’와 ‘진리’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그에게 있어 유학은 우

1) 신채호, 『儒敎界에 對한 一論』, 『단재 신채호 전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08면.(1차 텍스트는 신채호, 『단재 신채호 전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을 인용하였다.)

2) 愚學者의 盲眼으로 尊尊主義나 主張하며 鼓吹코자 하여 儒敎擴張을 唱하는 者는 文明의 賊이요 儒敎의 賊이며, 媚外輩의 妖術로 他校나 璞瑛하며 同胞나 誘導코자 하여 儒敎擴張을 唱하는 者는 社會의 賊이요 儒敎의 賊이라.(신채호, 『儒敎擴張에 對한 論』, 앞의 책, 119면)

주질서에 대한 하나의 형이상학적 이치로 설정할 수 있겠다. 유교국가의 봉건제적 양식의 고루함에 대해서, 도덕 윤리의 형식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정을 보이면서도 유교적 정신과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닮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하고 있는 점은 존화주의적 사대주의였고, 비합리적인 사회적 제도들이나 윤리들이었지, 그 본래적 형이상학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채호의 이러한 형식에 대한 정신의 우위성, 궁극적 본질성에 대한 추종은 문학에 대한 그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서울로부터 온 一友人이 나더러 이렇게 말한다. “近日 우리 朝鮮에는 文藝界에 革命健兒가 輩出하여 孔子를 罵한다, 孝의 사람을 撲滅하자 한다, 家庭關係를 打破한다. 結婚·離婚의 自由를 鼓吹한다, 民族主義를 反對한다 하는 등 思想의 進歩를 證할 만한 象徴이 한 둘뿐이 아니다한다. 此等の 是非 可否는 아직 말 말고, 다만 文藝革命의 尊稱을 興함은 不可한 줄로 생각하노라. 型式의 方面을 가르친 말이면 모르거니와 精神의 方面을 가르친 말이면 더욱 不可한 줄로 생각하노라.

盧스(루소)의 〈民約論〉의 發表가 君主專制의 虐斂이 한창 熾盛하던 때이며 톨스토포이가 아무리 稔和派이지마는 露西亞 帝室과의 存亡關係 있는 希魔敎를 反對한 勇士이다. 당시에 最大塵力과 宣戰하는 氣概나, 精神이나, 實績이 있어야만 무슨(혁명이라는 인용자 주) 尊稱을 올릴지어늘, 단 똥, 로베스뵈에르 등이 專權한 뒤에야 부르봉 皇室을 唾罵하여 現在의 最大魔力이 아닌 過去 陳跡에 대한 宣戰을 革命이라 하면, 革命이란 名詞를 위하여 一哭함이 가하나라³⁾

위 인용문을 통해 보자면, 정신을 형식의 우위에 두고 있는 신채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신과 형식의 구분은 서구 형이상학에서

3) 신채호, 『大黑虎의 一夕談』, 앞의 책, 323면.

의 육체와 영혼(정신)의 관계라기보다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 더 가깝다 하겠다. 신채호가 말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위 인용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혁명이라는 명사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사례에 문예계의 혁명이라는 수사를 사용함에 대해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헛됨을 비판하고 있다. 신채호가 보기에 조선의 현실은 이미 이전시대의 비합리적인 면에 대한 비판이 그 실효기간을 지난 상황에 있었다. 그에게 있어 ‘현실’에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문예계의 혁명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로는 불가능했다. 당대의 현실에서 ‘문예계의 혁명건야들이 주창하는 현실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인식상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⁴⁾’는 모습일 뿐이었다. 여기에서 신채호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및 설정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 즉, 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인식과 그 현실이 존재하여 펼쳐지고 있는 ‘我 조선’이라는 공간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가 지향하고자 하는 문학의 형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도’ 혹은 ‘아(我) 조선’을 놓아버린 채 사대적인 중화주의나 서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민족을 향해 ‘근본’을 되찾자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에 대한 근본지향적 태도는 신채호의 노력을 당대 규정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던 ‘전통’을 나름의 잣대로 수용하는 동시에 다시금 재구성하여 ‘근대’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지배적 통념으로 굳화된 주류적 인식에 반(反)하여 그에 맞서 주체적인 시각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다.⁵⁾

신채호의 민족주의 운동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말 언론과 결사를 통한 계몽운동, 1910년 망명부터 1923년 전까지의 해외언론운동과 임시정부 운동을 포함한 해외독립운동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 중 신채호의 문학 활동시기는 대략 190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에 이른다. 그의 소설 대부분

4) 질 들뢰즈, 김재인 역, 『베르그송주의』, 문학과지성사, 1996, 12면.

5) 1차 텍스트는 신채호, 『단재 신채호 전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을 인용하였다.

분은 창작된 연대가 불분명하나, 1908~1910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확인된 전기소설들과, 『꿈하늘』(1916년), 『용과 용의 대격전』(1928년)으로 그의 소설쓰기는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 그러나 신채호 문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꿈하늘』과 『용과 용의 대격전』은 각각 민족주의 표출과 아나키즘 수용이라는 양분화된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 글에서는 신채호 소설의 근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신채호가 소설을 통해 민중적 서사의 지향이자 아래로부터의 ‘앞’을 지향하면서 혁명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구상해왔음을 밝히고자 한다.⁷⁾

2. ‘아(我)’를 넘어선 ‘민족’으로의 사유의 확장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았던 1900년대 시기,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을 유지하지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의 창조와 형성이었다. 신채호는 이를 위해 ‘아(我)’의 개념을 강조하며 ‘아’를 바탕으로 하여 확장된 ‘민족⁸⁾’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몰두한다.

6) 김희주, 『신채호의 서사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8, 3면.

7) 신채호 문학과 아나키즘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복, 『단재 신채호 문학과 아나키즘론』, 『국어국문학계』 30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3, 12; 김성국, 『아나키스트 신채호의 시문적 재인식』, 『아나키즘연구』 창간호, 자유사회운동연구회, 1995, 7; 김재환, 『신채호 문학연구-근대적 주체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1; 김종학, 『단재 신채호의 아나키즘의 정치사상학적 의미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와 민중 개념의 형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현주,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아나키즘 사상의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05집, 한국어문학회, 2009, 9; 박중렬,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의 근대성과 계몽담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이호룡, 『신채호의 아나키즘』, 『역사학보』 제177집, 역사학회, 2003, 3; 최성실, 『한국현대소설의 아나키즘의 특성 연구-〈용과 용의 대격전〉, 〈원형의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 6; 서은선 외, 『신채호 아나키즘의 문학적 형상화-하늘과 용 이미지의 전도』,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4; 소영현, 『아나키즘과 1920년대 문화지리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3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10 등이 있다.

『대한의 희망』⁹⁾에서 국가는 있으나 국권(權)이 없는 나라이며, 인민은 있으나 ‘자유’가 없는 민(民)에 대한 개탄을 시작으로 하여 등장하게 되는 ‘야’의 개념은 막연하게나마 인민과 민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¹⁰⁾ 『대아(大我)와 소아(小我)』에서는 본격적으로 ‘我’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정의된다.¹¹⁾ 즉, 육신을 지칭하는 ‘小我’가 지닌 물질성과 유한성에 대해 부정하면서, 영원불멸하는 ‘大我’로써의 인민(人民) 혹은 민족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신채호의 ‘야’에 대한 사유는 사적인 의미보다는 공적인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야’는 민족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더 큰 ‘아성(我性)’ 곧 ‘민족’으로 환원되는데 이는 이후, 시대정신을 지닌 주체로 구체화된다.¹²⁾

8) “근대사회의 역사의식은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틀에 갇혀있다.” 그는 민족사(national history)에 의해 민족이라는 논쟁적이고 우연적인 개념이 시대를 거쳐 진화해 온 동일한 민족적 주체(subject)라는 허위의 실체로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프라센지트 두아라, 문명기·최승희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43-87면

9) 신채호, 『大韓의 希望』, 앞의 책, 54면.

10) 『大韓의 希望』에서도 강한 나라들의 패권 다름에 절망하고 있는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논조에서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강대국들이 과거 그들의 절망(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의 강성한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1) 신채호는 ‘小我’에 대해 “彼는 精神的의 我가 아니라 物質的의 我며, 彼는 靈魂的의 我가 아니라 軀殼的의 我며, 彼는 眞我가 아니라 假我며, 大我が 아니라 小我니(……) 今에 此物質界 軀殼界를 一超하여 精神的의 靈魂的의 眞我 大我를 我로 快悟하면 一切 萬物이 不死하는 者가 惟我라.” 고 서술한다. (신채호, 『大我와 小我』, 『大韓協會報』 5호, 1908)

12)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心的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느냐, 깊이 팔 것 없이 얇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 하나니,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英, 美, 法, 露…… 등을 비아라 하지만, 영, 미, 법 로…… 등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이 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밖에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對峙한 비아가 있고 아의 중에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중에도 또 아와 비아가 있어,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煩劇할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사회의 활동이 휴식이 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前途가 완결될 날이 없나니,

한편 민족으로 규정되는 ‘아’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세 앞에서 자립력을 지닌 독립적 존재여야 했고 힘의 정치적 논리를 수용하는 한편 이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여야 했다. 이는 그가 역사 관련 서사물을 생산해내었던 맥락과도 맞닿는다. 그가 저술했던 역사 서사물들은 곧 민족에게 공적 주체로서의 자질을 인식시키고 모범적 ‘대야’의 형상을 심어줌으로써 이에 대한 지향을 내성화(內省化)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그는 역사 서사물을 통해 민족을 현(現) 사회를 전복시킬 사건의 중심에 옮겨놓음으로 역사의 타자가 아닌 주체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곧 “민족을 사(捨)하면 역사를 무(無)할지며, 역사를 사(捨)하면 민족의 기(其) 국가에 대한 관념이 불대(不大)할” 것이므로 (……) 일선상(一線尙) 존(存)의 국맥(國脈)을 보유(保有)코자 할진대 역사를 사(捨)하고는 타술(他術)이 무(無)하다”¹³⁾는 논리와 상통한다.

한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에서는 ‘민족주의는 타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의’이며 ‘제국주의(帝國主義)는 민족주의(民族主義)가 박약(薄弱)한 국(國)에만 도입(導入)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사실 민족주의는 본래 서구에서의 경우에 민족 이기주의의 극대화로서 제국주의로 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였다. ‘민족을 구성하고자 했던 신채호에게 인식되었던 민족주의는 애초에는 민족자결과 상호협조의 원리 위에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이념이었다. 하지만 서구 열강들의 침략과 핍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결국 그에게 힘의 우열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결정하도록 이끌었다. 신채호에게 있어 궁극적으로 민족주의는 서구 열강에 대한 저항의 방식의 하나로 발전되었고, 힘의 집결을 요구하는 정체성 자각 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만 열강의 군사적 무력에 눌러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족주의를 통한 무력적인 세계 질서에 대한 해석은 『이십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니라(신채호, 『總論』, 앞의 책, 23면)

13) 신채호, 『讀史新論』, 앞의 책, 58면.

세기 신국민」¹⁴⁾을 통해서 확고해진다. 즉, 이 글에서는 서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명국을 이루어 힘을 기르자는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힘있는 종족의 유지와 진보를 위해 다른 종족 또는 민족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힘의 논리로 규정됨을 강조하고 있다.

신채호는 이렇듯 민족을 구성하는 사상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민족에게 자국의 문명과 깨우침을 주는 작업에 대해 구상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실의 제문제들을 해결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세계의 힘의 움직임들과 그 추세들을 주시하고 있던 그에게 힘의 집결을 추동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는 곧 민족을 통합하여 ‘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민족을 위한 ‘학문’(혹은 사상)을 구성하는 일로 진행된다.

그의 민족을 위한 ‘학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민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일된 언어 중심의 ‘학(學)’이며 다른 하나는 그 ‘학’의 외연을 혁명적 도구로 지지해 줄 ‘상무(尙武)’의 논리였다.

3. 민족 통합의 기반 : 국문학과 소설

1) 자국(自國) 생성의 기반 - ‘국문’학(國文學)과 소설론

신채호의 문학론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그가 국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언어가 ‘민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종족 지표의 하나이고 그의 문학이 지향하는 바가 민족의식 고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주창한 문학에 있어서의 ‘국문

14) 신채호, 『二十世紀 新國民』, 앞의 책, 76면.

사용의 강조는 곧 민족문학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채호의 생각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한 일련의 글들에서 드러나는데, 먼저 『국한문의 경중(輕重)』에서는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문자를 편성하고 자국의 문자로 자국의 역사지지를 편집하여 전국 인민이 봉독전송하여야 기 고유한 국정(國精)을 보지하며 순미한 애국심을 고발(鼓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시의 한문 중시 및 한글 경시 풍조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또한 『문법을 의통일(宜統一)』에서도 이제 한문만으로 국민의 지식을 깨우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글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글 연구와 보급에 대한 그의 기대는 『국문연구회 위원 제씨에게 권고함』에서도 나타난다.

신채호가 유림 출신이면서도 한자 사용 폐지와 더불어 한글 사용을 주장하게 된 것은 그가 지녔던 ‘파괴’를 통한 ‘창조’의 인식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주축이 되었던 한자를 폐기한다는 것은 곧 기존 제도와 인식을 전복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그가 몸 담고 있던 세계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또한 한글을 중심으로 한 ‘언문일치’가 필요함을 간파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의지이기도 했다.

국문 사용에 대한 강조는 문학의 민족적 형식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는 『조선 고래(朝鮮 古來)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에서 각각의 민족은 자기에게 이용되는 예술형식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형식의 이용을 문학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보았다. 또한 그는 다른 나라의 예술적 형식을 모방 답습하는 당시의 신체시, 신소설 작가들의 사대주의적인 창작 태도를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천희당시화』¹⁵⁾에서 “시(詩)란 자는 국민언어의 정화라고 강조하며 한시는 아무리 잘 써도 ‘지나시계의 혁명’은 가능하지만, ‘동국시계의 혁명’은

15) 신채호, 『天喜堂詩話』, 앞의 책, 108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조선의 시가형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국어·동국문·동국음’으로 시를 쓸 때에만 ‘동국시계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⁶⁾ 이 때 주목되는 것은 국문용호론을 바탕으로 한 민중지향성이다. 즉, 근대문학의 뿌리를 서양문학이 아닌 우리의 고유한 문학 전통에서 찾고 있으며, 우리의 문학전통 중에서도 사대부의 문학이 아닌 민중문학을 근대 민족문학이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국문의 활용에 대해 지대한 가치를 부여했던 그였지만 초기 창작에서는 국문 전용이라는 이상(理想)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당시의 문자사용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화중심의 사유체계가 무너지면서 자국의식이 뚜렷해지자 국어국문의 지위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한자를 대체하여 일상적인 문자로 사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비록 국문이 광범한 하층민들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오랫동안 한문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에서 한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문자로 자리잡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렸을 터였다. 실제로 그 시기 계몽문학의 향수 계층은 주로 순국문에 익숙하지 못한 한문 교양을 갖춘 이들이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해준다. 게다가 계몽운동의 선전매체인 신문·잡지의 절대 다수가 순국문보다는 국한문을 기본 표기로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 신채호가 국한문에 치우친 원인도 순국문 사용에서 부딪치는 이러한 난점을 분명하게 파악한 데 있다.

16) 그는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시각을 제시하는데, 7자시나 11자시나 지나 율체와 일본 음절을 모방한 것이므로 국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리랑이나 영변가 등 우리의 전통 시가를 계승하여 그것의 완고한 부분을 고치고 새로운 사상을 도입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국문문학에 대한 신채호의 애정이 형식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일시적으로 ‘국한문체’를 사용하면서 차차 순국문으로 가는 방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인식 때문에 그 역시 당시 국한문체로 문필활동을 하는 것이 국문소설 제창의 성격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에게 한자는 다만 표기 수단이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따라서 한문의 영향이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고 국문의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은 당시 국한문혼용체는 어찌면 신채호가 선택할 수 있는 표기방법이었을 지도 모른다. 이것을 신채호의 한계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한문도 국문과 같이 한문을 배제하고 민족의 언어 확립을 위한 대안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신채호의 민족 주체적 문학사상은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민족적 자아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서양 문학을 본받아 신문학을 이루려는 것은 ‘자아 상실을 획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 지배하에서 문학 내지 문화 운동을 표방하고 신문학을 한다는 것은 곧 외적 및 내적에게 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였다.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는 누구이나? 문화는 산업과 문물이 발달한 총적(總積)을 가리키는 명사니, 경제약탈의 제도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존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문화 발전의 기능이 있으랴……. 검열, 압수 모든 압박 중에 기개(幾個) 신문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의 목탁으로 자명(自鳴)하여, 강도의 비위를 거슬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¹⁷⁾

위의 글은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는 문학다운 문학, 자주적인 문화 운동

17) 신채호, 『朝鮮革命宣言』, 앞의 책, 90면.

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그는 서양 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 문학의 전례를 추종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문화의 침입을 자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문학을 일으켜야 하고, 민족주의 문학은 ‘고유한 조선’, ‘민중적 문화’를 살리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그의 민족주의 문학사상은 예술 혹은 문학지상주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데, 당시 신문학을 지향하는 부르주아적 작가들이 고취한 예술지상주의가 지닌 허구성과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소설이 지닌 효용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구축한다.

흥미로운 점은 「근금(近今) 국문소설 저자의 주의(注意)」에서 국문옹호론과 함께 소설론을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천하의 큰 사업은 을지문덕이나 합소문 같은 큰 영웅이나 큰 호걸이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부우부와 아동주졸이 지어내는 것이며 사회의 크게 붓쫓게 하는 것은 종교나 정치나 법률 같은 큰 학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문소설로 바르게 하는 바라.” 여기에서 자각되는 소설의 효용성은 「소설가의 추세」¹⁸⁾에서 소설이 지닌 사회적 기능과 결합되어 드러난다. 즉, 문학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내야 하며 민중의 각성을 고취하고 투쟁을 이끄는 인도주의 문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민족적 자아의 각성을 촉구하고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논설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학은 시보다도 소설이라고 하였다. 즉, 문학의 중심은 국문으로 된 소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社會)의 대취향(大趣向)은 국문 소설의 정(正)하는 배라”고 말한다. 즉, 국문소설이 일반 서민을 감화시키기 때문에 사회의 큰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고, 퇴폐적인 구소설과 신소설을 일소할 때 새로운 소설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

18) 신채호, 「小說家の 趨勢」, 앞의 책, 77면.

다. 그는 자기시대의 모습을 그리는 데 철저한 자각을 가지는 문학 즉, 신문학을 시대적 요청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신문학, 신소설의 방향은 민족적 요구를 배반하는 것으로 주로 남녀의 연애사건을 그리는 “잠음문학”이고 청년으로 하여금 연애의 단꿈을 꾸게 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⁹⁾ 이는 당시 일본 정치소설가들이 지녔던 소설효용론적 논의와 더불어 양계초가 주장했던 ‘소설혁명론’의 언술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문학의 진퇴 및 성쇠와 일국의 운명은 그 관련성이 적지 않다. 이주 오래 전에 한 시인이 세상에 남긴 한 권의 시집은 복잡한 법률조문에 비해 그것이 애국심을 기른다는 점에 있어 훨씬 낫다.…… 호머의 시에는 희랍의 예기가 보존되어 있고, 『征代朝鮮物語』가 오랫동안 일본인의 용기를 보존하고 있으니 이는 사람들이 잘 아는 바이다. 이러니 시의 기능이 어찌 크지 않다 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점은 단지 문학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얘기이다. 만약 회화와 조각, 혹은 소설이나 역사를 말하더라도, 이것들 중 인심의 흥말이나 사회의 성쇠와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없다.…… 문학은 한 나라의 정신으로서 그 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문학이 고결하고 깨끗할 때에는 국민의 성정과 풍속도 고결하고 깨끗해지며, 저속하고 더러울 때에는 인심을 부패케 한다. 그러므로 문학의 청탁과 그 수준의 고하를 통해 그 시대의 풍속과 인정을 알 수 있다. 문학이 풍속과 사람들의 성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와 같다.²⁰⁾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

19) 신채호, 『浪客의 新年漫筆』, 앞의 책, 43면.

20) 吉田精一·淺井清 編, 『近代文學評論大系1』(東京: 角川書店, 1978, 168면 : 沈亨哲,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중일 3국의 소설관념 변화양상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현대문학』 제2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2, 365-366면 재인용)

은 주로 소설을 두고 한 말이다. 그의 관점에 의하면, 소설을 비롯한 문학의 성패에 따라 세상의 성쇠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양계초(梁啓超)의 『소설여군치지관계(小說與群治之關係)』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발견된다.

한 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한 나라의 소설을 새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도덕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고, 종교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며, 정치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고, 풍속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학문과 예술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하며, 곧 인심을 새롭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한다. 왜 그런가? 소설은 인간사를 지배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²¹⁾

이는 곧 국민성, 도덕, 종교, 정치, 풍속, 학예, 인심, 인격 등이 소설이 새로워짐으로써 바뀌어질 수 있다는 ‘소설’ 만능론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소설의 사회·정치적 기능을 강조한 논리는 조선의 신채호의 소설론과도 상통한다.

소설은 국민의 나침반이라.(……) “소설은 국민의 나침반이라.(……) 소설이 국민을 강한 데로 도(導)하면 국민이 강하며 정(正)한 데로 도(導)하면 정하며 사(邪)한 데로 도(導)하면 사(邪)하나니”²²⁾

신채호의 논리는 소설을 통해 국민성의 개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

21) 梁啓超, 『論小說與群治之關係』, 『資料集』, 33면(沈亨哲,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중일 3국의 소설관념 변화양상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현대문학』 제2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2, 366면 재인용)

22) 신채호, 『小說家の 趨勢』(『大韓每日申報』, 1909. 12. 2)

을 지닌 것으로, 양계초의 ‘소설결정론적’ 견해와 유사하다.²³⁾ 국문을 통해 민중을 위한 ‘문학’을 구성하고자 하는 신채호의 논리는 그가 지녔던 교육관과 맞물려 완결된 구도를 정립하게 된다.

2) 혁명을 위한 ‘무기(武器)’로써의 문학

신채호에게 있어 문(文)은 민족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언제나 弱으로 변모할 수 있는 불안함을 내재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하기에 ‘문(文)’에 ‘상무(尙武)정신’과 같은 강건한 심의가 수반되기를 촉구하였다.²⁴⁾ 그러하기에 그에게 있어 문학은 “이론이나 캐고 앉았는 나약한 지식계급으로서의 근처에 가기도 어려운 야수성²⁵⁾을 지닌 서사여야 했다.

한편 그는 세계열국이 현재의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 것도 모두 상무교육을 통해 국민을 군국민으로 육성하였기 때문인 만큼, 나라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만유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신성한 국가를 보유²⁶⁾하기

23) 이는 “옛날 유럽의 각국이 변혁을 하던 초기에는 뛰어난 선비와 학자들이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왕왕 개인적인 경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 정치적 논의를 모두 소설에 기탁했다. (……) 때때로 하나의 책이 나올 때마다, 전국의 논의가 이 때문에 완전히 변화였다. 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각국 정계의 계속된 진보에는 政治小説의 공이 매우 크다. 영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소설은 국민의 혼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하다.”

24) “우리는 尙武教育 이 녀자를 큰소리로 외치나니,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세계는 軍國世界이다. 세계 열국이 모두 상무교육 즉 軍國民 敎育을 진흥하는 까닭에 저와 같이 복리를 획득하고 또 확장하나니, 아아, 상무교육이 아니고는 결코 국가정신·민족주의·문명주의를 유지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한국과 같이 무력이 쇠퇴한 나라로서는 상무교육이 아니고는 결코 獨立의 길을 찾아내기 어려우니, 국민 동포는 반드시 상무교육을 확장하여 군국민의 정신을 수양하며, 군국민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신채호, 『二十世紀新國民』, 앞의 책, 22면)

25) 심훈, 『불사조』, 『심훈문학전집3』, 탐구당, 1966, 441면.

26) 신채호, 『今日 大韓民國의 目的地』, 앞의 책, 99면.

위해선 상무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강력한 타자인 비아(非我)를 맞아 아(我)의 영역인 한국민족의 주체적 자강을 위해서도, 상무교육을 통해서 국가정신·민족주의·문명주의를 유지 발휘하는 것은 필수적이란 논리로부터 비롯되었다.²⁷⁾ 신채호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강병(強兵)’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학의 외연은 점차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무장되어 간다.²⁸⁾ 하지만 국권을 상실한 시대에 교육 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무교육의 실천을 공교육 차원에서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20세기 신국민』을 발표한 이듬해인 1911년, 일본은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황국 신민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채호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제도 밖에서 호소하는 차원으로밖에 전개될 수 없었다. 신채호는 그가 해석한 ‘군국세계’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으로써 자각된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무력투쟁을 소설을 통해 구현하려는 시도를 시작한다. 이는 강렬한 내적 충동의 산물이자 부정적 현실이 촉발한 걱정과 울분의 토로인 동시에, 부정적 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현실을 구현하려는 열망의 발로이기도 했다.

27) 이는 전통적 체용론(體用論)과 수양론(修養論)적 토대를 배경으로 한 지덕체론과 맞물리고 있다. (“무슨 교육을 위선 힘쓰고 흘진더 태육, 덕육, 지육 세 가지를 불가불 먼저 힘쓸지니: 『나라의 쇠잔함은 실로 완고한 노물의 부패심으로 인함이요 나라의 흥왕함은 전혀 천년을 교육하는 단체력에 있다함』, 『大韓每日申報』, 1908. 3. 25)

28) 당시 사회진화론에 대한 관념적 확신은 당대 지식인 상당수가 공유했던 바였다. ‘우승열패’의 사고는 한편으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자강론의 계기도 되었지만 (‘아(我)’의 열등함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길 때 자칫 ‘아’ 자체의 패배와 소멸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부정의 의식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었다.) 이는 자칫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시변(時變)’에 순응하는 몰주체적 행위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데, 신채호는 역으로 ‘아’의 주체적 행위를 더욱 강조하며 부각시킨다.

4. 주류적 서사에서 비껴선 민중적 서사의 지향

그의 문학(문)은 이인직, 이해조류의 신소설이나 이광수류의 계몽 소설, 김동인과 염상섭 등 일본 유학파들의 고백체 소설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상적 근거를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오랫동안 지배적 통념으로 굳어진 주류적 역사인식에 반기를 들고 새롭게 주체적인 역사적, 문학적 시각을 펼쳐 보였다. 그는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류적 앎의 체계를 사대주의와 유교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사고라고 비판하며 그에 맞서는 사유의 체계를 세우려 하였다. 즉, 지배적 앎의 체계에 의해 억눌리고 망각된 앎을 발굴하는 작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채호가 민중 사이에 전해오는 전설, 야담, 설화 등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역사 가운데 강인하고 굳세어 남에게 굴하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 감추기에 급급하고, 옛사람에 가운데서 썩은 선비나 오괴한 서생을 높이 받들어, 치욕스럽고 가소로운 일과 지리하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로 우리 한국 4천 년 역사를 추저분하게 만들고 위대한 영웅은 한결같이 파묻어 버렸다. 따라서 용처럼 싸우고 범처럼 활약한 인물이었던만 시골구석 아이들의 한 토막 애깃거리로 근근이 전해지고, 신명이 놀라고 귀신이 곡할 만한 공업(功業)을 세웠건만 나무꾼의 한가락 노래로 우연히 퍼져 나가며, 전해져 내려오던 사적은 쓸쓸하여 흔치않다. 그러니 그 밖의 성이며 이름까지 잃어버린 대장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²⁹⁾

켜켜이 쌓인 검은 먼지가 오랫동안 공의 역사를 덮고 있었음을 나는 통탄해 왔다. 그런 까닭에 조야(朝野)의 사승(史乘)을 뒤지고 향간의 구전을 채록하여 공의 심사를 그려내고자 한다. 우리 동국 거결 최도통전

29) 신채호, 송재소·강면관 편역, 『을지문덕』, 동광출판사, 1990, 174면.

을 읽는 뜨거운 피 끓는 국민들이여!³⁰⁾

주류적 삶의 양식과 대척점에 위치한 전설, 야담, 설화, 이언 등에 대해 신채호는 ‘등하사담(燈下私談)’³¹⁾이라 칭하였다. 이는 곧 전통적 입장에서 보자면, 허황된 이야기들로 간주될 수도 있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진실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의 사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공식적 기억의 심급에서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은폐된 이야기 즉, 삶에 대한 서사에 대한 관심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사유세계가 끊임없이 ‘민중들을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부적이고 불연속적이고 폄하되고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삶들에 활기를 불어넣”³²⁾어 비공식적이고 배제된 삶의 해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지배자의 관점에서 기술된 기존의 삶의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중적 문화 양식과 서사 구조를 수용하되 이를 기존의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특유의 상상력을 첨가하여 여기에 새로운 정치·역사적 사상을 부여하였다. 이는 그가 소설이라는 서사에 대하여 “傳說, 神話, 童謠, 風俗 등 雜調를 마음대로 統用하며 山川景概, 人物善惡, 是非苦難富貴 등 布景袁濱을 作者의 취미대로 文藝學術의 美妙를 極히하여 讀者의 관심을 엇게하는 者”³³⁾로 정의하며, 근대의 등하사담이라 할 수 있는 소설서사에 전래의 민중적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여기에서 그는 진화론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관을 배제하고, 새로운 서사 진행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자 중심의 서술들에 자리를 내어

30) 신채호, 『동국 거길 최도통전』, 앞의 책, 213-214면.

31) “유교가 쇠하기 전에는 궁예의 본전(本傳)이 발행될 수도 없고, 본조(本朝)가 혁화하기 전에는 최영의 실록이 유전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두 사람의 일을 통식(痛惜)하나 또한 나와 너의 사이에 등하사담(燈下私談)이 될 뿐이요 남에게 고할 말은 아니니라.”(신채호, 『일이승(一耳僧)』, 위의 책, 84면)

32)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24-26면.

33) 신채호, 『고구려 삼국결전 서문』, 앞의 책, 447면.

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과 폐쇄된 서사들 - 야담, 기담, 전설 등 - 을 풀어 내어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한다.³⁴⁾ 이를 테면 『백세노승의 미인담』은 아내 배신형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의 서사적 일개를 차용한 작품이다.³⁵⁾ 액자의 도입부와 미완결된 후반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의 구조와 일치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차용된 설화와 소설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점이 아니라 차이점 즉, 신채호에 의해 새롭게 변용된 부분이다. 즉, 여종 엮분이가 지닌 주체성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면, 민중 설화를 도입하면서도 민중 의식을 그대로 수용한다기보다 이를 보다 역동적으로 비틀어 그려냄으로써 역사적 정치적 변혁의 힘을 이끌어 내려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채호는 허구적 글에서도 이를 현실로 경험하기를 혹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事實에 가깝지 안한 詩的 神話도 있지만 그 가온대 들어 말한 歷史上 일은 낫나이 古記나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나 高句麗史나 廣史나 繹史 갖은 속에서 參照하야 쓴 말이니 讀者 여러분이시여, 석지 말고 갈너 보시소서”³⁶⁾라는 구절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허구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겸하여 이를 실제의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언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음에 살펴볼 소설에서도 신채호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건들이나 현실의 상황들을 덧붙여 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신채호가 지녔던 문학사상에는 민족주의적 속성과 조선의 독립을 위한 ‘상무’라는 혁명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

34) 김현주, 『신채호의 역사이념과 서사적 재현 양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상허학보』 제14집, 상허학회, 2005. 2, 317면.

35) 『백세노승의 미인담』의 지하국대적퇴치 설화 차용 및 변이양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상석의 『신채호 소설 〈백세노승의 미인담〉의 근원설화와 변개양상』, 『국어국문학』 제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12 참고.

36) 신채호, 앞의 책, 513-514면.

다. 이는 그의 대표 소설 작품(『꿈하늘』, 『龍과 龍의 대격돌(大激突)』)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폭력을 통한 전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형상화된다.

우선, 『꿈하늘』은 주인공 ‘한놈’이 꿈 속에서 ‘님과 도깨비의 싸움’에 나가고 있는 민족사적 영웅인 을지문덕을 만나 함께 ‘님의 나라’ 전쟁터를 거쳐 ‘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놈은 여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님나라의 전쟁터로 달려가지만 점차 친구들은 고통(이품벌, 고됨벌), 돈(황금산), 시기심(새암), 좌절감, 미인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 사람씩 이탈해 간다. 그러던 중 끝까지 시련을 이긴 한놈이 적장을 만나 칼로 치려고 하지만, 순간 미인에 잠깐 홀린 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지옥의 순옥사자 강감찬의 교화로 대오각성한 한놈은 님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님나라에 들어간 한놈에게 필요했던 것은 강렬한 투쟁정신과 전투에게 이기고자 하는 진취성이었다. 『꿈하늘』의 후반부에 신라의 화랑을 칭송하며, 그들이 지녔던 상무정신을 예찬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저항과 항거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소설에서 신채호는 “人間에게는 싸움뿐이라. 싸움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나니 神의 命이 이러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당시의 사회를 양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로 인식하고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싸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의 외연을 상무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던 신채호의 이론은 이런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꿈하늘』에서는 한놈 혼자만이 님나라에 입성하여 영웅들과 함께 다가올 맑은 하늘을 기대하고 있으나 『용과 용의 대격돌』에서는 민중이 저항과 반역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소설의 활동무대는 천상(天上)과 지상(地上)으로 이분되어 있고 천상에는 상제(上帝)와 천사들이 살고 지상에는 인간이 살고 있다. 지상의 인간은 부자와 빈자로 양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강국의 민중’으로 지배자로 군림하고 후자는 ‘식민지의 민중’으로 피지배자이다. 지상의 인간을 이렇게 양분시킬 것

은 상제가 인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즉, ‘강국’으로 하여금 ‘식민지’를 착취하게 함으로써 강국의 민중들이 상제에 대하여 반역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식민지의 민중에게는 ‘허망한 요행심’이나 ‘문화정치’ 등의 기만책으로 민중의 자각을 무디게 한 것이다. 결국 상제의 포악함에 반기를 든 민중들에 의해 대란이 일어나고 상제의 하수인인 미리와 민중의 대변자이자 반란을 주도하는 드래곤의 결전에서 드래곤의 승리로 끝이 난다.³⁷⁾ 여기에서 상제는 민중에 대하여 “인민이란 선천적으로 반역성을 타고 낳아”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민중이 지닌 역동성, 저항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민중에 대해서도 두 부류로 나누어, 강국의 민중에 대해서는 “타성적인 애국심을 가진 동시에 국가를 지배계급의 국가로 오인하여 지배계급의 세력을 확장 증진케 하는 일을 애국으로 오산(誤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식민지 민중이 저항운동을 통해 상제의 외아들 야소기독을 죽인 후 신채호는 앞으로 도래할 민중의 시대에 대한 언급을 서술하고 있다.

민중들이 야소를 죽인 뒤 미구에 공자·석가·마호메트…… 등 종교·도덕가들을 때려죽이고, 정치·법률·학교·교과서 등 모든 지배자의 권리를 옹호한 서적을 불지르고, 교당·정부·관청·공해(公廨)·은행·회사…… 등 건물을 파괴하고, 과거의 사회제도를 일체 부인하고, 지상의 만물이 민중(萬衆)의 고유임을 선언하였다.³⁸⁾

37) 소설에서 미리와 드래곤은 일태쌍생(一胎雙生)의 괴물인데, 미리는 “조선·인도·중국 등의 나라에서 성장하여, 동양의 용이 되어 석가·공자 등의 소극적 교육을 받아 상제의 충신”이 된 용으로 묘사되고, 드래곤은 “회랍·로마 등지에 체재하여 서양의 용이 되어 늘 반역자·혁명자들과 교류하여 ‘혁명’·‘파괴’등을 즐기며 종교나 도덕의 굴레를 받지 않는 서양의 용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미리는 동양적인 복종정신, 노예근성을 상징하고 드래곤은 서양의 반항정신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크로포트킨 사상을 받아들이며 무정부주의 사상을 실천하던 신채호의 신념이 표출된 부분이라 하겠다.

38) 신채호, 『龍과 龍의 大激戰』, 앞의 책, 279-280면.

민중들은 야소를 죽이는 동시에 현 시대에 존재하는 일체의 정치·법률·종교·도덕·사회제도를 파괴하고 부인하고자 한다. 이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닌 민중에게 내재되어 있는,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식민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신채호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신분제적 사회질서와 외세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수동적 존재들이 아닌, 직접혁명의 주체로서 호명되는 ‘민중’이라 할 수 있다.³⁹⁾ 이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의 주체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채호는 맹목적으로 민중을 신화화하거나 그들의 계급적 연대를 절대시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역을 구분하는 공간설정과 양자의 민중이 처한 현실이 다르다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⁴⁰⁾ 여기에서 그는 민중의 잠재력 역량을 상징하는 드래곤의 승리를 통해 혁명의 도래를 낙관적으로 제시한다.

5. 결론 : 아래로부터의 ‘얹’과 신채호의 문학론

신채호에게 있어 문학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지배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효용적 가치가 있는 도구였다. 문학은 곧 무정형의 민족을 국가와 연동되는, 정형화된 민족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시각적 수단이자 민족을 역사의 ‘주체자’로 서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또한 허구적 폭력을 통해 제국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혁명적 도구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일찍이 민요의 긍정성을 깨닫고 이를 수용하여 새로운 시가로 발전시킬 것을 주창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가형식인 창가를

39) 김종학, 『신채호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기원』, 『세계정치』 제28집 1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 봄·여름, 267면.

40) 이정석, 『신채호 소설의 전도적 상상력과 그 서사적 효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6집 (14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3, 179면.

직접 창작하고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유시의 창작에도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⁴¹⁾ 이렇듯 신채호의 지배체제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된 삶에 대한 긍정적 관심은 이러한 삶의 체계를 활성화하고 서사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렇다고 신채호가 기존 체제에 존재해왔던 사상적 기반 전부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소설의 효용론을 설득하게 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중국과 일본 정치·사상가들과의 교집합은 분명 존재했다. 또한 신채호가 서술해 왔던 역사서를 살펴보면, 역사가 지닌 가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과 역사가 만나 문학사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그는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었을까? 신채호는 아래로부터의 삶의 구도 즉, '민중이 지닌 지식(삶)'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국문'과 '상무정신'으로 탈제도화되었고 식민 국가가 제공하는 문학·교육 이데올로기가 지닌 모순성에 끊임없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민중으로부터 비롯된 '삶'의 문학을 구축함을 통해 이룩하려 했던 새로운 '국가의 형성은 허구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신채호에게 있어 전투 혹은 혁명을 위한 도구로써 채택된 문학은 민족을 국가의 중심에 위치시킬 수 있는 '역사가 탈각된 지점에서 그 효용성을 잃었다.

그럼에도 그가 문학을 단순히 실제적 도구로써만 생각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다. 그가 지녔던 문학에 대한 집착은 다양한 형식의 소설들을 생산해 내었고 이를 민중들이 지식 체계로 받아들일길 요구하기도 했다.

『정복의 가면』에서는 “동의(consent)에 의해 작동하는 문화적 지배가 종종 폭력(force)에 의한 정복에 앞서 행해진다는 논지로 문화와 권력 간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⁴²⁾고 언급한다. 덧붙여, “권력은 분명하게 구분되

41) 최현주, 『신채호 문학의 탈식민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9. 329면.

는 두 개의 층위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화를 만들어 낸다.(…) 권력은 ”사회 집단의 최상위 계층 스스로가 공언하듯, ‘지배’와 ‘지적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분명한 점은 헤게모니 투쟁은 권력을 얻기 위해 행사되는 물질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리더십을 작동시키기 위해 힘을 얻는 행위라는 것이다.”⁴³⁾라고 말한다. 이런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영문학이 식민지 인도에서 ‘상위계층의 지식(앎)의 구도’에서 발견되었다면, 역으로 신체화는 아래로부터의 앎의 구도 즉, ‘민중이 지닌 지식(앎)’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국문’과 ‘상무정신’으로 강조되었고, 식민 국가가 제공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닌 모순성에 끊임없는 의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민중으로부터 비롯된 ‘앎’의 문학을 구축함을 통해 이룩하려 했던 새로운 ‘국가의 형성은 허구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학을 단순히 실제적 도구로써만 생각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그가 지녔던 문학에 대한 집착은 다양한 형식의 소설들을 생산해 내었고 이를 민중들이 지식 체계로 받아들일길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방대한 역사서를 저술하면서 왜 문학사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에게 있어 진정 문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폭력은 권력의 또 다른 형상이라고 엘리아스 카네티는 말한다.⁴⁴⁾ 폭력과 권력이 지닌 차이점은 폭력은 강제적이고 직접적이며 즉각적이고 가까운 어떤 것과 결부되는 것을 뜻한다면, 권력은 폭력보다 더 넓은 공간성을 지니고 있으며 포괄적이지만 다소 정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권력은 폭력보다 더 격식을 따지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인내심도 갖고 있다. 폭력은 그것을 행사할 여유가 있을 때는 권력이 되지만 위기의 순간, 돌이

42) Botler, Gary, L, *Conquest of the Mask*, Lightning Source Inc. 2006, pp12-13

43) Botler, Gary, L, *Conquest of the Mask*, Lightning Source Inc. 2006, pp30-31

44)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옮김,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379면.

킬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도래할 때는 순수한 폭력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다면, 신채호에게 ‘혁명’을 위한 폭력적 허구를 창출하는 도구로서의 문학은 역설적으로 권력을 창출하고자 했던 욕망의 반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허구적 폭력을 통한 전복이 실패로 끝났다는 자괴감은 그 폭력을 ‘순수하고’ 실제적인 폭력으로 되돌렸고, 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여는 가능성으로 그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살펴본 바 신채호가 지향했던 문학론은 근대 문학사의 어느 지점에 편입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낯선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그가 지향했던 서사 방식이 지닌 존재론적 특이성보다는 근본 발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당시의 소위 근대적 문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는 다른, 이질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현실을 넘어서고자 했던 열망을 담고 있었다. 형식보다는 그 근원,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더불어 그의 문학에는 승리자가 아닌 억눌리고 패배한 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그리고 그들을 ‘민족으로 호명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허구로나마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시해 주고자 했던 치열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된다.

진지한 젊은이, 남녀, 농부, 노동자와 군인,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권리를 생각하고 우리에게로 올 것이다. : 당신은 당신의 형제와 함께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 혁명은 모든 노예제도를 폐지하며, 모든 구속을 끊어버리고, 옛 전통을 깨뜨리며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지평선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 혁명은 마침내 인류사회에서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라. 그들 노동의 열매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 그들 능력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 또 이성적인 인간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라.⁴⁵⁾

45) 크로포트킨, 김정심 역, 『청년에게 호소함』, 신명, 1993, 26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단재 신채호 전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신채호, 송재소·강면관 편역, 『을지문덕』, 동광출판사, 1990.
심훈, 『심훈문학전집3』, 탐구당, 1966.

2. 논문

- 김종학, 『신채호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기원』, 『세계정치』 제28집 1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
김현주, 『신채호의 역사이념과 서사적 재현 양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상허학보』 제14집, 상허학회, 2005.
박상석, 『신채호 소설 〈백세노승의 미인담〉의 근원설화와 변개양상』, 『국어국문학』 제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沈亨哲,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중일 3국의 소설관념 변화양상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현대문학』 제2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2.
이정석, 『신채호 소설의 전도적 상상력과 그 서사적 효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6집(14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최현주, 『신채호 문학의 탈식민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3. 단행본

- Botler, Gary, L, *Conquest of the Mask*, Lightning Source Inc, 2006.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박병덕 옮김,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질 들뢰즈, 김재인 역, 『베르그송 주의』, 문학과지성사, 1996.
크로포트킨, 성정심 역, 『청년에게 호소함』, 신명, 1993.
프라센지트 두아라, 문명기·최승희 역, 『민중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Abstract>

The narrative of revolutionary imagination
and reform of the people
—A Study on Shin Chae-ho's Literature

Cho, Young-Ran

In discussing the composition of literature,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literary theory of Danjae Shin Chae-ho (1880-1936). This may be due, among other things, to the various levels of his narrative of literature. Shin Chae-ho's thought to call Joseon's "ethnic" by crossing "traditional" and "modern" is reflected in a wide range of works. The variation of his reasons in history books, editorials, novels, biographies, and poems is truly enormous. The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What was the source of the cause that penetrated Shin's epic?' This could be said by changing the keywords that penetrated the various narratives of Shin Chae-ho had.

First of all, Shin Chae-ho's base of ideas lay in the "natureist thing." This is consistent with a permanent and universal province. It also emphasizes fundamental spirit, not formality. In the 1900s, when national survival was threatened, Shin dreams of creating and forming a "main body" that can exert cohesive power. To this end, they emphasize the concept of "a" and devote themselves to forming a community called "ethnic" based on "a." "Ah," defined as a nation, should have been an independent being and a potential beyond that, while embracing the political logic of power. In addition, it envisions the work of giving

“ethnic” its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which develops in two directions. One was language-oriented “hak,” and the other was “Sangmu's logic” to support the outside world of “hak.” He advocated “Korean literature” and “fiction” as the basis for his country's creation and chose literature as a weapon for revolution. In particular, he pursued a popular narrative among literary works because of his desire to form a new “nationality” by building up the literature of “knowledge” from the people.

Key words: Shin Chae-ho Literary Theory, Meaning of “Me”, Ethnic Community, Korean Literature and Novel, People's Epic, Literature of “Knowledge”, Subjectivity

투 고 일 : 2020년 5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6월 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